☀ 본 자료의 배포 목적...

"과연 내가 보고 있는 교재가 시험에 진정 많은 도움이 될까? 점수가 잘 나오는 친구들은 어떤 교재를 보고 어떤 인강을 듣고... 아니면 어떤 학원을 다닐까?"

수험생이라면 한번쯤은 위와 같은 고민을 해보았을 것이다. 더구나 수능이나 모의평가의 경우 평가원이나 EBS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해설지라도 있는데, 사관학교나 경찰대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해설지도 없으니 본인이 학습하고 있는 교재가 과연 올바른 교재인지… 혹시 오류는 없는지… 또는 정작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은 빠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해석은 정말 올바른지(구글 번역기를 사용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교재도 있는 것이 현실)… "교재 한 권 선택하면 수십시간에서 어쩌면 백시간 이상을 투자해야 할텐데…" 불안감을 느껴보기도 했을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은 간단하다. 적어도 2~3개의 난이도 높은 기출문제를 본인이 완전히 숙지한 후,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놓았는지 여러 교재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된다. 첫째, 오류가 없을 것. 둘째,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을 것. 셋째, 해설이 본인 수준에 맞을 것. 다음으로 편집이나 디자인 등등...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런데 교재 선택 이전에 난이도 높은 기출문제 2~3개를 어떻게 숙지한단 말인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원한다면 본 자료를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권하고 싶다.

※ 본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먼저 차분히 문제를 풀어볼 것. 자신의 문제에 대한 접근법과 약점 파악이 목적.

- 2. 어휘는 지문에서 사용된 의미 뿐만 아니라 자주 쓰이는 의미도 함께 제시하였음. 학습한 단어가 다른 지문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으므로, 어휘 학습시 가급적 제시된 모든 의미를 암기하기를 권장함.
- 2. 구문 파악은 암기가 아니라 이해에 해당하므로 스스로 구문 파악이 가능한 문장은 구태여 구문을 복습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음. 단, 처음에 구문 파악이 되지 않은 문장이 있다면, 구문 해설을 이해한 후에라도 한두 번은 직접 손으로 필기해봄으로써 체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음.
- 3. 내용 파악이 쉬운 문장을 제외하고, 문장 해석은 가급적 직독직해를 원칙으로 하였는데, 이는 영문 해석 속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임. 어휘 암기와 구문 파악에 확신이 있는 수험생이라면 확인용 정도로 살펴보면 무방함.
- 4. 어휘와 구문이 스스로 완벽하다고 여기는 수험생이라면?

한 회분 기출문제 전체를 정해진 시간내에 풀어보았을 때 적어도 90점 이상의 점수가 나와야 함. 어휘 암기와 구문 파악에 자신이 있는데도 90점 이상의 성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휘의 다양한 쓰임새에 대한 지식이 부족이거나 구문 파악에 대한 체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임. 이로 인해 지문을 읽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어휘의 의미에 대해 그리고 구문 파악에 대해 고민하느라 헛된 시간을 쓰게 되고, 또 어휘와 구문에 신경을 쓰느라 정작 중요한 글의 흐름 파악이나 출제 의도 파악에는 소홀해질 수 밖에는 없었다는 것을 나타 내는 것임. 어휘 암기와 구문의 체화로 다시 돌아가 볼 것을 권장함.

마지막 페이지에 계속됨.

■ Zoom In : 어법 ■

2.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Given their disposition to be attentive to situational cues, high self-monitors (HSMs) are keen to make sure they know the nature of the situations they are about to encounter. The *clarity* of the situational expectations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HSMs. This was nicely demonstrated in a study in which students (A)[gave / were given] the choice of entering or not entering a situation in which they had to behave as extroverts. HSMs were far more likely to enter if the situation was defined clearly, irrespective of their own extroversion level. However, low self-monitors (LSMs)' choices were based on (B)[what / whether] they were introverts or extroverts; if they were LSM extroverts, in they went. Also, when asked how the situation might be changed to make them more (C)[willing / willingly] to enter it, HSMs transformed it so as to provide clearer guidelines for conduct. LSMs transformed the situation to more closely match their own dispositions to be introverted or extroverted. [4점]

	(A)		(B)			(C)	
1	gave	••	W	vhat ··	W	villir	ng
2	gave	••	W	hethe	r	w	illingly
3	were	given	•••••	wheth	ier ··	• • • •	willingly
4	were	given	•••••	what	•••••	wil	lingly
(5)	were	given		wheth	ier		willing

Ď Note	е			

■ 한줄 해석 & 한줄 분석 ■

2.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Given their disposition to be attentive to situational cues, high self-monitors (HSMs) are keen to make sure [they know the nature of **the situations** {they are about to encounter}].

상황적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는 그들의 기질을 고려해 볼 때, high self-monitor(HSM)들은 -을 확실히 하기를 몹시도 바란다 [그들이 **상황**의 본질을 아는 것 {그들이 막 마주치려고 하는}].

※ given (전치사적 또는 접속사적) -이 주어지면, -을 고려해 볼 때 / disposition [dispəziʃən] n. 기질, 경향; 배열, 배치 / attentive [əténtiv] a. 주의를 기울이는, 신경을 쓰는 / cue [kjuː] n. 단서, 신호, 계기, 실마리 / high self-monitor : 자기주시 경향이 높은 사람 / keen [kiːn] a. 열망하는(=eager), 열정적인[열렬한]; 날카로운, 예리한(sharp) / make sure (that) S + V - : -을 확실히 하다, 반드시 -하도록 하다 / be about to do : 막 -을 하려고 하다, -하려는 순간이다 / encounter [enkáuntər] vt. -와 우연히 만나다, 마주치다, 조우하다 ☀ [] 부분은 'make sure'의 목적어절로서 접속사 that이 생략되어 있음. { } 부분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문장으로 앞의 the situations가 선행사.

The *clarity* of the situational expectations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HSMs. 상황의 예상에 대한 명확성은 HSM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 clarity [klærəti] n. 명료, 명확

This was nicely demonstrated in a study // in which students (A)[gave / were given] the choice of entering or not entering a situation {in which they had to behave as extroverts}.

이것은 **한 연구**에서 훌륭하게 증명되었다 // 학생들이 **상황**에 <u>진입하거나 진입하지 않는</u> 선택을 **제공<u>받은</u> {그**들이 외향적인 사람으로서 행동해야만 <u>하는</u>}.

※ nicely αd. 정밀하게, 훌륭히 / demonstrate [démənstrèit] vt. 증명하다 / extrovert [ékstrouvà:rt] n. 외향적인 사람

☀ 이중 사선(//) 뒷부분은 관계대명사절로 앞의 a study가 선행사. (A)[gave / were given] 부분은 간접목적어가 주어가 되면서 수동태가 된 형태이므로 'were given'이 적절함. 'entering or not entering'은 동명사로서 전치사 of의 목적어로 쓰임. { } 부분은 관계대명사절로 앞의 a situation이 선행사.

HSMs were <u>far</u> more likely to enter / if the situation was defined clearly, irrespective of their own extroversion level.

HSM들은 진입할 가능성이 <u>훨씬</u> 더 높았다 / 만약 그 상황이 명백하게 정의되어 있었다면, 그들 자신의 외향성 수준과 관계없이.

※ irrespective of - : -와 관계없이 / extroversion [ekstrouver:3en] n. 외향성

☀ far는 비교급을 강조.

However, low self-monitors (LSMs) choices were based on / (B)[what / whether] they were introverts or extroverts; if they were LSM extroverts, in they went.

그러나, low self-monitor(LSM)들<u>의</u> 선택은 -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 그들이 내향적인 사람**인지** 외향적인 사람**인지**; 만약 그들이 LSM 외향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들은 진입했다.

※ introvert [íntrəvəːrt] n. 내향적[내성적]인 사람

☀ (LSMs) 뒤의 apostrophe(')는 'low self-monitors', 다시 말해 'LSMs'라는 복수명사의 소유격을 나타내서 "apostrophe(')+(e)s"에서 -(e)s가 생략되고 apostrophe(')만 남은 상태. (B) 부분은 전치사 on의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어야 하는데, 뒤의 'they were introverts or extroverts'에는 주어나 목적어의 생략이 없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at은 사

용 불가. in they went는 they went in에서 부사 in이 도치된 형태인데 주어가 대명사이기 때문에 '부사+주어+동사'의 어순이 됨.

Also, when asked [how the situation might be changed / to <u>make</u> them more (C)[willing / willingly] to enter it], HSMs transformed it [so as to provide clearer guidelines for conduct]. 또한, -을 질문 받았을 때 [그 상황이 변화될 수도 있는 방식 / 그들이 더 기꺼이 그것에 진입하도록 만들기 위해], HSM들은 그것을 변형시켰다 [행동에 대한 더 명백한 지침을 제공하도록].

※ guideline n. 지침, 가이드라인 / conduct [kándʌkt] n. 행위, 행동, 품행

☀ when과 asked 사이에는 '주어+be 동사'에 해당하는 'they were'가 생략되어 있음. 첫 번째 [] 부분은 관계부사 how 앞에 선행사 'the way'가 생략되어 명사절로 쓰이고 있음. (C) 부분은 make의 목적격보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형용사인 willing이 적절함. 두 번째 [] 부분은 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중 '목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부정사 앞에 'so as'를 첨가한 형태.

LSMs transformed the situation [to (more closely) **match** {their own dispositions to be introverted or extroverted}]. [4점]

LSM들은 그 상황을 변형시켰다 [-에 (더 밀접하게) 어울리도록 (내향적이거나 외향적인 그들 자신의 기질)].

※ match vt. -에 어울리다, 걸맞다 / introverted α. 내향적[내성적]인

☀ [] 부분은 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중 '목적'으로 쓰이고 있음. { } 부분은 match의 목적어에 해당.

| 정답 : ⑤ |

※ Solution Guide : 구문 분석 참고.

※ tip: 기출문제 분석시 쌍으로 된 선택사항 간 차이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연습을 해볼 것.

■ 선택지

(A) (B) (C)

- 1 gave what willing
- 2 gave whether willingly
- 3 were given whether willingly
- 4 were given what willingly
- 5 were given whether willing

_
_

■ Zoom In : 어휘 ■

4.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ccording to descriptive realism, states are, as a matter of fact, motivated exclusively by national self-interest. Their behavior is not influenced by moral considerations. On this view, any appeal to ideology and values in world politics is mere rhetoric, (A)[concealing / revealing] the pursuit of power, which is at the root of every decision taken in the international arena. Some see this as an (B)[avoidable / inevitable] consequence of human nature. Since humans are naturally self-seeking, the argument goes, it is to be expected that this will be reflected in their political institutions. For 'structural' realists, by contrast, it is the anarchical nature of the international system—the absence of an 'overarching sovereign' or 'world government'—that explains why states are so preoccupied with their own interests. The absence of a world government makes for an insecure environment which (C)[forbids / forces] states to seek power in order to ensure their own survival. [4점]

	(A)		(B)	((C)
1	concealing	•••••	avoidable	•••••	forbids
2	concealing	•••••	inevitable	•••••	forces
3	concealing	•••••	inevitable	•••••	forbids
4	revealing ··	ii	nevitable ·	···· f	orbids
(5)	revealing ··	a	voidable ·	····· f	orces

å N	Vote					

■ 한줄 해석 & 한줄 분석 ■

4.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ccording to descriptive realism, states <u>are</u>, (as a matter of fact), <u>motivated</u> / exclusively by national self-interest. Their behavior is not influenced by moral considerations.

descriptive realism(기술적 사실주의)에 따르면, 국가는, (사실상), <u>동기부여된다</u> / 오로지 국가의 자체 이익 추구에 의해서만. 국가의 행위는 도덕적인 고려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 descriptive [diskriptiv] a. 기술적인; 묘사적인 / as a matter of fact : 사실상 / motivate [móutəvèit] vt. 동기를 부여하다; 자극하다 / exclusively ad.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오로지 -만 / self-interest [sélfintərist] n. 사리사욕, 사리 추구

On this view, any appeal to ideology and values (in world politics) is mere rhetoric, (A) [concealing / revealing] {the pursuit of power}, {which is at the root of every decision (taken in the international arena)}.

이것을 볼 때, 이념과 가치에 대한 어떠한 호소도 (세계 정치에서) 미사여구에 불과하며, -을 숨기고 있다 (세력 추구), (모든 결정의 근본에 있는 (국제 무대에서 취하여지는)).

※ appeal [əpíːl] n. 호소 / ideology [àidiάləd3i] n. 이데올로기, 이념 / rhetoric [rétərik] n. 미사여구, 수사법[학] / conceal [kənsíːl] vt. 숨기다 / pursuit [pərsúːt] n. 추적; 추구; 일, 직업 / arena [əríːnə] n. 경기장[공연장]; (각축전이 벌어지는) 무대

☀ concealing은 'and it[any appeal] conceals'를 대신하는 분사구문. 두 번째 { }는 관계대명사절로 <u>which</u>의 선행사는 앞의 {the pursuit of power}. () 부분은 앞의 '**every decision**'을 수식.

Some see this as an (B)[avoidable / inevitable] consequence of human nature.

일부는 이것을 인간 본성의 불가피한 결과라고 여긴다.

※ see[regard] A as B : A를 B라고 여기다[간주하다] / inevitable [inévitəbəl] α.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Since humans are naturally self-seeking, [the argument goes], it is to be expected [that this will be reflected (in their political institutions)].

인간은 본래 자기 본위이기 때문에, [그 주장에 따르면], -이 <u>기대되어질 수 있다[기대되어야 한다]</u> [이것이 반영될 **것**(정치 제도에)].

※ self-seeking n. α. 이기주의(의), 자기 본위(의) / argument [άːrgjəmənt] n. 논거, 주장; 논쟁, 말다툼 / go vi. (이야기·시·글·노래 등이) -이라고 씌어 있다, -이라고 되어 있다(run) / institution [instətjúːʃən] n. 기관; 제도

☀ it은 가주어이고 [that -] 부분이 진주어이다. is to be expected는 'be to용법' 중 '가능'이나 '의무'로 파악할 수 있으며 'can[should] be expected'의 의미이다.

For 'structural' realists, by contrast, <u>it is</u> [{the anarchical nature of the international system}—{the absence of an 'overarching sovereign' or 'world government'}—] / <u>that</u> explains {why states are so preoccupied with their own interests}.

반면에, 'structural' realists('구조적' 사실주의자)에게는, <u>바로</u> [(국제 체제의 무질서한 본질)—(즉,) ('모든 것을 포용하는 지배자'나 '세계 정부'의 부재<u>)이다</u>—] / -을 설명<u>하는 것은</u> {왜 국가가 자체의 이익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 structural [stríktʃərəl] α. 구조(상)의, 조직의 / realist n. 현실주의자 / anarchical [ænάːrkik] α. 무정부(주의)의, 무정부 상태의, 무질서한 / overarching α. 무엇보다 중요한, 모든 것에 앞선; 모든 것을 포용하는 / sovereign [sávərin] n. 주권자, 군주(monarch), 지배자 / preoccupied with - : -에 집착하는 / interest n. 이권, 이익

☀ '<u>it is</u> - <u>that'</u> 강조구문이 사용됨. 첫 번째 [] 안의 두 개의 {}는 동격. <u>that</u> 뒤의 {} 부분은 '의문사+주어+동사 -'가 explains의 목적어 역할.

The absence of a world government makes for **an insecure environment** / which (C)**[forbids / forces]** states to seek power (in order to ensure their own survival). [4점]

세계 정부의 부재가 불안정한 환경에 기여한다 / 국가가 어쩔 수 없이 세력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자체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 make for - : -에 기여하다; -에 도움이 되다 / insecure [însikjúər] α. 불안정한, 불안전한 / forbid [fərbíd] vt. 금(지)하다, 허용하지 않다 / ensure [enʃúər] vt. 보장[보증]하다; 확실하게 하다

☀ 사선(/) 이하는 an insecure environment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대명사절.

| 정답 : ② |

※ Solution Guide: 해석 참조.

※ tip : 쌍으로 된 두 단어 중 문맥에 맞는 낱말을 찾는 문제에는 주로 반의어가 쌍으로 등장함. 따라서 둘 중 하나의 단어만 확실히 알고 있고, 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면 어려운 유형이라 할 수 없음.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단서는 지문에 너무 많이 등장함. 평소 정확한 어휘 암기와 정교한 구문 분석에 집중하다보면 저절로 해결될 유형임.

■ 선 택 지

(A) (B) (C)

- ① concealing avoidable forbids
- 2 concealing inevitable forces
- 3 concealing inevitable forbids
- 4 revealing inevitable forbids
- 5 revealing avoidable forces

출	Note

■ Zoom In : 함축 의미 ■

8. 밑줄 친 <u>turn them into a big raft to float around on the rivers and lakes</u>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One typical exchange begins with Huizi telling Zhuangzi that a king once gave him a gift of a handful of large gourd seeds: "When I planted them they grew into enormous gourds, big enough to hold twenty gallons! I tried to use them as water containers, but they were too heavy to lift; I tried cutting them to make spoons, but they were too shallow to hold any liquid. It's not that I wasn't impressed by their size, but I decided they weren't really useful for anything, so I smashed them." In China at the time, gourds were used for these two purposes, containers or spoons. Hence Huizi's disappointment. Hearing this story, though, Zhuangzi is incredulous. "You are certainly a fool when it comes to thinking big!" he declares. He tells Huizi some stories about people who took apparently useless or trivial items and used them for unexpected purposes, winning great rewards in the process. "Now you've got these gourds," he concludes. "Why didn't it occur to you that you could turn them into a big raft to float around on the rivers and lakes, instead of lamenting how they're too big to use as spoons! It's as though you've got underbrush growing in your mind!" [4점]

* gourd: 조롱박 ** underbrush: (큰 나무 밑에 나는) 덤불

- ① conform to established conventions
- ② show respect for other people's possessions
- 3 take a look at your current spending habits
- 4 be flexible when considering the uses of objects
- 5 pay attention to the size of the item you are buying

출	Note	

■ 한줄 해석 & 한줄 분석 ■

8. 밑줄 친 turn them into a big raft to float around on the rivers and lakes가 다음 글에서 의미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One typical exchange begins with / Huizi telling Zhuangzi [that a king once gave him a gift **of** a handful of large gourd seeds]:

하나의 전형적인 대화는 -로 시작한다 / Huizi가 **말하는 것** Zhuangzi에게 [예전에 한 왕이 그에게 선물로 한줌의 커다란 조롱박 씨앗을 주었다는 것].

※ exchange [ikstʃéind3] n. 교환, 주고받기; 얘기를 나눔, 대화; 말싸움, 언쟁 / begin with - : -으로 시작하다 / seed [si:d] n. 씨(앗), 종자 // * gourd: 조롱박

☀ telling은 동명사로서 전치사 with의 목적어로 쓰이며, 앞의 Huizi는 의미상 주어. []는 telling의 직접목적어. of는 동격 을 나타내는 전치사.

"When I planted them they grew into **enormous** gourds, {big enough to hold twenty gallons}! I tried to use them (as water containers), but they were too heavy to lift; I tried cutting them (to make spoons), but they were too shallow to hold any liquid. It's not that I wasn't impressed by their size, but I decided they weren't really useful for anything, so I smashed them."

"내가 그것들을 심었을 때 그것들은 자라서 **엄청 큰 (**20갤런을 담을 **정도로 큰)** 조롱박이 되었지! 나는 그것들 을 (물을 담는 용기로) 사용해보려고 노력했어, 그러나 그것들은 너무 무거워서 들어올릴 수가 없었어; 나는 (수저를 만들기 위해) 그것들을 잘라보았어, 그러나 그것들은 (속이) 너무 얕아서 액체를 조금도 담을 수가 없 었어. 그것들의 크기가 인상 깊지 않았던 <u>것은 아니지</u>만 나는 그것들이 어떠한 것에도 정말로 쓸모가 있지는 않다고 결정을 내렸지,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부셔버렸어."

※ grew into - : -으로 자라다, 자라서 — 되다 / enormous [inɔ́ːrməs] a. 거대한, 막대한, 매우 큰(immense) / shallow [ʃælou] a. 얕은 / smash [smæʃ] vt. 박살내다《up》; 때려부수다

☀ { } 부분은 앞의 enormous에 대한 부연. It's not that에서 It은 '상황'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In China at the time, gourds were used for these two purposes, containers or spoons. Hence Huizi's disappointment.

그 당시 중국에서는, 조롱박은 이러한 두가지 목적, 즉 (담는)용기와 수저 용도로 사용되었다. 여기에서 Huizi 의 실망이 유래하는 것이다.

※ hence [hens] αd. 그러므로, 따라서; (동사를 생략하여) 이 사실에서 -이 유래하다[발생하다] (ex. Hence (comes) the name Cape of Good Hope. 여기에서 희망봉이란 이름이 나왔다.)

- 9 -

☀ 밑줄친 두 부분은 동격.

Hearing this story, though, Zhuangzi is incredulous.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고나서 Zhuangzi는 회의적이다.

※ incredulous [inkréd3ələs] a. 쉽사리 믿지 않는, 의심하는, 회의적인

☀ Hearing은 분사구문으로서 'after he hears'의 의미.

"You are certainly a fool when it comes to thinking big!" he declares.

"크게 생각하는 것에 관한 한, 너는 확실히 바보야!" 그는 단언한다.

※ when it comes to - : -에 대해서[관해서]라면, -에 관한 한 / declare [dikléər] vt. 선언[언명]하다, 단언[공언]하다

He tells Huizi some stories about **people** [who took apparently useless or trivial items and used them for unexpected purposes, {winning great rewards in the process}].

그는 Huizi에게 **사람들**에 대한 몇가지 이야기를 말한다 [외관상 쓸모없거나 하찮은 물건을 <u>취해</u>서 그것들을 의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그 과정에 커다란 보상을 얻으면서}].

※ trivial [tríviəl] α. 하찮은, 사소한, 대단치 않은

☀ [] 부분은 앞의 **people**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대명사절로서 **and**가 <u>took</u>과 <u>used</u>를 대등하게 연결하고 있음. **{ }** 부분은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Now you've got these gourds," he concludes. "Why didn't it occur to you [that you could turn them into a big raft to float around on the rivers and lakes)], instead of lamenting how they're too big to use as spoons]! It's as though you've got underbrush growing in your mind!" [4점] "지금 너는 이 조롱박들을 얻게 되었어," 그는 결론을 내린다. "왜 -이 너에게 떠오르지 않은건가 [그것들을 커다는 뗏목으로 만들어서 강이나 호수 위를 떠다닐 수 있다는 것], 그것들이 너무 커서 어떻게 수저로 사용할수 없는 것을 한탄하는 대신에! 너는 마치 덤불이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것 같아!"

※ occur [əkéːr] vi. (-rr-) (머리에) 떠오르다, 생각이 나다 / turn A into B : A를 B로 바꾸다[변화시키다] / raft [ræft] n. 뗏목 / lament [ləmént] vt. 비탄하다; 애석해 하다 // ** underbrush: (큰 나무 밑에 나는) 덤불

☀ it은 가주어이고 [] 부분이 진주어에 해당.

| 정답 : ④ |

※ Solution Guide: 밑줄 쳐친 부분이 포함된 문장은 ["~," he concludes. "~."]의 형태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밑줄 부분은 그가 내리는 결론[he concludes]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앞문장[He tells Huizi some stories about people who ~]에 나온 그가 Huizi에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몇가지 이야기(some stories about people who ~)]를 말해준다는 것은 이 결론에 대한 예시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예시와 밑줄 부분이 들어 있는 부분을 대응시켜보면 다음과 같다. [took apparently useless or trivial items: Now you've got these gourds / used them for unexpected purposes: turn them into a big raft to float around on the rivers and lakes]. 이를 다시 선택지 ④와 대응시켜보면 [used them: uses of objects / for unexpected purposes: flexible].

■ 선택지

- ① conform to established conventions (확립된 관례에 따르다)
- ② show respect for other people's possessions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을 표하다)
- ③ take a look at your current spending habits (당신의 현재의 소비 습관을 살펴보다)
- ◆ be flexible when considering the uses of objects(사물의 용도를 고려할 때 융통성이 있다)
- ⑤ pay attention to the size of the item you are buying (당신이 구입하고 있는 물품의 크기에 주의를 기울이다)

※ conform to - : -에 따르다 / current [kéːrənt] a. 현재의, 현행의 / flexible [fléksəbəl] a. 구부리기 쉬운; 유연성이 있는(pliable); 융통성 있는 / pay attention to - : -에 주의를 기울이다

\	다음은	본 자료에 대한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본	자료의	제작자인 Thomas샘(송원장)에 대한 소개입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영어과 졸업
- 고등부 및 N수생 대상 강의경력 20여년
-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영어 검토위원
-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검토위원
- 교육신문 에듀진 교육칼럼니스트
- 경찰대/사관학교 영어전문 유튜브채널 영단어짱 운영

cf. 다음은 교육신문 에듀진에 실린, 본 자료 제작자의 기사입니다.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기출문제를 분석하는지 실례로서 제시해봅니다.)

에듀진 기사: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692 에듀진 기사: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692

cf. 다음은 본 자료 제작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비록 이전의 기출문제 해설이지만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고민하는 수험생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풀이 방법이야 지금도 바뀐 것은 아니니까요. 현재는 업로드가 중단된 상태인데 호응이 있으면 다시 시작해볼까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vocablab660/videos

cf. 다음은 육군사관학교 평가관리실로부터 본 자료 제작자가 받은 메일 내용입니다. (본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위해 공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까지...?)

안녕하세요. 우선, 2022학년도 사란학교 /차 시험에 관해 꾸준한 관심은 갖고 충분한 근거른 제시하면서 예 리한 질문은 제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와 같은 답변이 부족하게나마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른 생각은 정리한 것입니다. 앞으로 출제를 하는 데 있어서 더 꼼꼼히 구문은 살피겠다는 약속은 드리며 저희 축제진의 의견은 참조하셔서 좋은 교재를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철저함으로 판단하건대 정말 훌륭한 교재가 탄생할 것임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사란학교 문제에 관심은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2학년도 사관학교 축제진 드립.

		111.00	GL \ A.II		
(opvright 20	123. Thomas	샌(Sona Won	(hang) All	riahts	reserved

이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재사용하려면 사전에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Note				

■ Zoom In : 장문(1) ■

[27~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This might sound like a fevered nightmare, but climate change has triggered the collapse of advanced civilizations dating back nearly 3,000 years. Around 1200 BCE, a perfect storm of calamities—including earthquakes, famines, and a drought that lasted 150 years or more—set in motion the breakdown of the late Bronze Age kingdoms clustered around the eastern Mediterranean in an area that includes much of what is now Greece, Israel, Lebanon, Turkey and Syria. Archaeologists have unearthed persuasive evidence that part of the world experienced vibrant economic (a)growth and cultural and technological advances for more than three centuries. These ancient societies—from the Mycenaeans and Minoans to the Hittites, Assyrians, Cypriots, Canaanites and Egyptians—were intimately (b)interconnected, exchanging the services of physicians, musicians and artisans. Their well-developed trade routes transported goods and natural resources, especially commodities such as tin, essential for making bronze.

But a 2012 study revealed that surface temperatures of the Mediterranean Sea cooled rapidly during the years around 1200 BCE, (c)causing a severe drought that led to food shortages, mass migrations, and internal rebellions by poor and agrarian peasants. Ultimately, the major cities of these once-thriving Bronze Age societies were destroyed by invading armies likely fleeing their own drought-stricken homelands, (d)prompting the loss of culture, languages and technologies. The result was the first Dark Ages when these once-sophisticated and complex societies (e)continued to exist. It took centuries to recover and rebuild.

27. 윗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the late Bronze Age kingdoms
- 2 the necessity of international efforts to prevent climate change
- ③ ongoing attempts to reveal a mystery about bronze artifacts
- 4 ideal climate conditions for building advanced civilizations
- (5) reasons the Bronze Age kingdoms prospered

28. 밑줄 친 (a)~(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① (a)
- ② (b)
- ③ ©
- (d)
- ⑤ (e)

■ 한줄 해석 & 한줄 분석 ■

[27~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This might sound like a fevered nightmare, but climate change has triggered [the collapse of advanced civilizations {dating back nearly 3,000 years}].

이것은 과열된 불안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후 변화는 -을 유발시켰다 [**진보된 문명**{거의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의 붕괴].

※ fevered α. 몹시 흥분한, 과열된, 정신없이 바쁜(= frantic) / nightmare [náitmὲər] n. 악몽 (같은 경험[상황]); 공포[불안](감) / trigger [trígər] n. (총의) 방아쇠; vt. 유발하다 / collapse [kəlæps] n. 붕괴 / date back :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 [] 부분은 has triggered의 목적어에 해당. { }는 advanced civilizations을 수식.

Around 1200 BCE, a perfect storm of calamities [—including earthquakes, famines, and a drought {that lasted 150 years or more}—]set in motion / the breakdown of the late Bronze Age kingdoms / [clustered] (around the eastern Mediterranean) in an area {that includes much of what is now Greece, Israel, Lebanon, Turkey and Syria}].

기원전 1200년 경, 더할 수 없이 나쁜 재난 상황[─지진, 기근, 그리고 가뭄{150년 이상 지속된}을 포함하는─] 이 <u>-에 시동을 걸었다</u> / **청동기 시대 말의 왕국들**의 붕괴 / [<u>무리지워져 있던</u> (지중해 동부 주변) **지역**에 {-을 <u>포함하는</u> 현재 Greece, Israel, Lebanon, Turkey 그리고 Syria 지역의 많은 부분}].

※ perfect storm : (한꺼번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겹치는) 더할 수 없이 나쁜 상황 / calamity [kəléməti] n. 재난, 참화, 재해 / famine [fémin] n. 기근, 식량 부족 / drought [draut] n. 가뭄 / set - in motion : -에 시동을 걸다, -을 움직이게 하다 / breakdown [bréikdàun] n. (기계의) 고장, 파손; (건강상의) 쇠약; 몰락, 붕괴 / cluster [klístər] n. (과실·꽃 따위의) 송이, 한 덩어리, (같은 종류의 물건· 사람의) 떼, 집단; v. 무리[떼]를 이루다[이루게 하다] / the Mediterranean (Sea) : 지중해

* a perfect storm of calamities가 주어, set이 동사. the breakdown of the late Bronze Age kingdoms은 동사 set의 목적어. [] 부분은 앞의 the late Bronze Age kingdoms를 수식. { }는 앞의 an area를 수식.

Archaeologists have unearthed **persuasive evidence** [that part of the world experienced vibrant economic (a)**growth** and cultural and technological **advances** (for more than three centuries)]. 고고학자들은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굴해냈다 [세계의 일부 지역이 활기 넘치는 경제적 <u>성장과</u> 문화적 그리고

기술적 **진보**를 경험했다는 것 (3세기 이상 동안)]. ※ archaeologist [àːrkiálədʒist] n. 고고학자 / unearth vt. 발굴하다, 파내다 / persuasive [pərswéisiv] a. 설득력 있는 / vibrant [váibrənt]

α. 진동하는; 활기 넘치는
※ []는 앞의 persuasive evidence와 동격인 명사절. and는 growth와 advances를 대등하게 연결.

These ancient societies—**from** the Mycenaeans and Minoans **to** the Hittites, Assyrians, Cypriots, Canaanites and Egyptians—were intimately (b)**interconnected**, **exchanging** {the services of physicians, musicians and artisans}.

이러한 고대 사회들은—the Mycenaeans와 Minoans에서부터 the Hittites, Assyrians, Cypriots, Canaanites 그리고 Egyptians까지—밀접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었다, -을 교환하면서 {의사, 음악가 그리고 장인의 서비스}.

- ※ intimately αd. 밀접하게, 친밀하게 / interconnected α. 상호 연결된 / artisan [ά:rtəzəń] n. 장인, 숙련공
- ☀ exchanging은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 } 부분은 exchanging의 목적어에 해당.

Their well-developed trade routes transported goods and natural resources, (especially

commodities such as tin), essential for making bronze.

그들의 잘-개발된 무역 경로는 <u>상품**과** 천연 자원</u>을 운반했다, (특히 주석과 같은 상품), 청동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 commodity [kəmάdəti] n. 상품 / tin [tin] n. 주석 / bronze [brαnz] n. 청동

But a 2012 study revealed / that surface temperatures of the Mediterranean Sea cooled rapidly (during the years around 1200 BCE), (c) <u>causing</u> <u>a severe drought</u> [that led to food shortages, mass migrations, and internal rebellions (by poor and agrarian peasants)].

그러나 2012년의 한 연구는 -을 드러냈다 / 지중해의 표면 온도가 급속히 차거워져서 (기원전 1200년 경 몇년동안), <u>혹독한 가뭄을 유발시켰다</u>는 것 [식량 부족, 대규모 이주, 그리고 <u>내부 폭동(</u>농업에 종사하는 가난 한 소작농들에 의한)으로 이어진].

※ migration n. 이주, 이동 / rebellion [ribéljən] n. 모반, 반란, 폭동 / agrarian [əgrέəriən] α. 토지의, 농지의; 농업[농민]의 / peasant [pézənt] n. 농부, 소작농

◈ 사선(/) 이하는 revealed의 목적어절. <u>causing</u>은 앞 내용의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끄는 분사구문으로 'and it caused'로 전환 가능. []는 <u>a severe drought</u>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대명사절. (by poor and agrarian peasants)는 앞의 <u>internal rebellions</u>를 수식.

Ultimately, the major cities of these once-thriving Bronze Age societies were destroyed by **invading armies** [likely fleeing their own drought-stricken homelands], (d)**prompting** the loss of culture, languages and technologies.

결국, 한때-번영했던 청동기 시대 사회의 주요 도시들이 **침략군에** 의해 파괴되어서 [아마 가뭄에 타격을 입은 자신들의 고국에서 탈출하고 있던], -을 촉발시켰다 문화, 언어 그리고 (과학)기술의 상실.

※ thriving [θráiviŋ] α. 번영하는, 번창하는 / invade [invéid] vt. 침입하다, 침략하다 / likely αd.

(종종 very, quite, most와 함께) 아마, 가능성 있게 / flee [fli:] v. (p., pp. fled [fled]) 달아나다, 벗어나다, -에서 탈출하다 / drought-stricken a. 가뭄에 타격을 입은 / prompt vt. 촉발하다

☀ [] 부분은 앞의 **invading armies**를 수식. **prompting**은 앞 내용의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끄는 분사구문으로 'and it prompted'로 전환 가능.

The result was the first Dark Ages / when these once-sophisticated and complex societies (e)continued [→ ceased] to exist.

그 결과는 최초의 암흑 시대였다 / 한때 세련되고도 복잡했던 이러한 사회가 <u>계속해서 존재한[→ 더 이상 존</u> <u>재하지 않게 된</u>].

※ sophisticated [səfistəkèitid] α. 세련된, 정교한 / cease [siːs] vt. 멈추다, 중지하다, (하던 일을) 하지 않게 되다

☀ when은 the first Dark Ages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부사.

It took centuries to recover and rebuild.

회복과 복구에는 수세기가 걸렸다.

| 정답 : 27-① / 28-⑤ |

** Solution Guide: [The result was the first Dark Ages when these once-sophisticated and complex societies (e)continued to exist.(그 결과는 최초의 암흑 시대였다 / 한때 세련되고도 복잡했던 이러한 사회가 계속해서 존재한)]을 보면, '최초의 암흑 시대'와 '계속해서 존재했다'는 의미상 상충되며, 더구나 다음 문장[It took centuries to recover and rebuild.(회복과 복구에는 수세기가 걸렸다.)]을 보면 '계속해서 존재했다'는 내용은 어울리지 않으므로 (e)continued를 ceased(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로 고쳐야 문맥상 적절하다. 또 이 문장[The result was the first Dark Ages when these once-sophisticated and complex societies (e)ceased to exist.]에서 'The result'에 주목한다면 앞부분에는 [한때 세련되고도 복잡했던 이러한 사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원인'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단락의 첫문 장을 보면 [surface temperatures of the Mediterranean Sea cooled rapidly(지중해의 표면 온도가 급속히 차거워졌다)]가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지중해 표면 온도가 급속히 차가워져서 한때 세련되고도 복잡했던 여러 사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는 것이 지문 전체의 내용이다.

※ tip :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보려는 노력이 중요함. 시간 절약에 필수 사항이므로 Solution Guide를 숙고해보기를 바람. 혹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좀 더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라면 질답방을 이용 바람.

27. 윗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the late Bronze Age kingdoms (청동기 시대 말 왕국들에 대한 기후 변화의 영향)
- 2) the necessity of international efforts to prevent climate change (기후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필요성)
- 3 ongoing attempts to reveal a mystery about bronze artifacts (청동기 가공품에 대한 신비를 밝혀내려는 계속적인 시도)
- 4 ideal climate conditions for building advanced civilizations (진보된 문명을 구축하기 위한 이상적인 기후 조건)
- 5 reasons the Bronze Age kingdoms prospered (청동기 시대 왕국들이 번영했던 이유)

※ the impact of A on B : B에 대한 A의 영향 / ongoing α. 계속되는, 진행 중인 / artifact [ɑ́ːrtəfækt] n. 인공물, 가공품 / prosper [prάspər] vi. 번영하다, 번성하다

28. 밑줄	친 (a)~(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4점]	
① (a)	② (b)	(3) (C)	④ (d)	⑤ (e)	

≙	Note	

- 15 -

다음은 '2021년 고1 11월 모의고사'에 대해 교육신문 '에듀진'에 '**[고1 11월 학평 해설] 영어영역 24번 선택지 오류**'란 제목으로 실렸던, 본 자료 제작자의 기사입니다. 사관학교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내용이지만, 주제, 제목, 요지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작은 힌트가 될수도 있는 사항이라서 제시해봅니다. ['에듀진'에서도 본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말을 언제나 정확히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native라고 해서 영어를 언제나 정확하고 옳게 표현할 수는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또 공신력있는 출제기관이라고 해서 문제를 출제할때 언제나 옳고 정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수많은 수험생이 치르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대해서라면 시험을 출제할때, 원문의 선별에서부터 교정과 가공에 이르기까지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 글을 쓴다. 바쁜 일정에 쫓기는 출제자를 탓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밝히고 싶다.(No one is wise at all times.) [필자주]

24.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modern times, society became more dynamic. Social mobility increased, and people began to exercise a higher degree of choice regarding, for instance, their profession, their marriage, or their religion. This posed a challenge to traditional roles in society. It was less evident that one needed to commit to the roles one was born into when alternatives could be realized. Increasing control over one's life choices became not only possible but desired. Identity then became a problem. It was no longer almost ready—made at birth but something to be discovered. Traditional role identities prescribed by society began to appear as masks imposed on people whose real self was to be found somewhere underneath.

* impose: 부여하다

위에 제시된 이미지는 2021년 11월에 치러진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영어 영역 24번 지문이다. 주어진 지문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다. 확인하기 쉽도록 지문 전체에 걸쳐 등장하는 동사를 박스로 처리해보았다. 이젠 답으로 제시된 ②번 선택지를 살펴보자.

- ① What Makes Our Modern Society So Competitive?
- 2 How Modern Society Drives Us to Discover Our Identities
- ③ Social Masks: A Means to Build Trustworthy Relationships
- ④ The More Social Roles We Have, the Less Choice We Have
- ⑤ Increasing Social Mobility Leads Us to a More Equal Society
- ② How Modern Society Drives Us to Discover Our Identities (Modern Society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몰아가는 방식)

지문에 등장하는 모든 동사가 과거시제로 표현되어 있는데, 왜 제목으로 제시된 선택지 ②번의 동사는 현재시제(Drives)일까? 이는 아마도 출제자가 'Modern'이라는 단어를 '현대의'라는 의미로 파악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Modern'은 '현대의'라는 의미 외에도 '근대의'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는 것은 사전을 참고하면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이다. 결론적으로, 지문에 등장하는 모든 동사의 시제가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원문의 필자가 'Modern'을 '근대의'라는 의미로 사용했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선택지 ②번에 등장하는 동사 'Drives'를 과거시제 'Drove'로 교체해서 'How Modern Society Drove Us to Discover Our Identities(근대 사회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몰아간 방식)'이 되어야 선택지 ②번이 적절한 제목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혹자는 제목에 허용될 수 있는 함축이나 파격으로 인해 현재의 선택지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번 생각해보라. 현재의 선택지(How Modern Society Drives Us to Discover Our Identities)가 의미하는 "현대 사회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몰아가는 방식"이라는 제목을 읽고, 과연 지문에 '과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제시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 Thomas샘의 더 많은 기사는 '교육신문 에듀진'에서 '토마스'로 검색.

처음 페이지에 이어서...

5. 어휘와 구문이 스스로 완벽하다고 여기고 또 기출문제를 시간내에 풀어보았을 때 적어도 90점 이상의 점수를 달성하지만... 만점이 나오지 않아 고민하는 수험생이라면?

간혹 유튜브나 티비에 등장하는 원어민이 수능문제를 틀리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영어 자체에 대한 실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글의 특성과 문제 유형에 따른 정확한 독해법을 적용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임(우리 한국인이 국어 비문학 문제를 풀 때 틀릴 수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해, 글의 특성과 문제 유형에 맞춘 예리한 독해 기술은 시험 시간 절약과 정확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이를 Skill이라고 많이 표현하는 것 같은데... 본인은 얕은 잔재주나 요령을 말하는 것이 아님). 그러나 올바른 독해 기술을 익히는 것은 어휘와 구문에 비해 훨씬 적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도 가능하므로 수험생으로서 우선 주력해야 할 것은 어휘와 구문 분야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람. 본 자료의 각 문제 끝 부분에 제시된 'Solution Guide'와 'Tip'을 음미해보면 문제에 따른 해법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그리고 필요로 하는 수험생이 많다면, 독해법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나 영상을 제작해볼 예정임.

덧붙여, 사관학교 영어 기출문제해설 비급자료가 더 필요하신 분은... 다음카페 [https://cafe.daum.net/pre-cadet]를 방문해주세요...

Copyright 2022. Thomas샘(Song Won Chang) All rights reserved.

이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재사용하려면 사전에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